

차상찬 야담 전집으로서의 『한국야담사화전집』 재조명

제5권을 중심으로

Reconsidering Hanguk Yadam Sahwa Jeonjip as Cha Sang-chan's Collected Yadam: Focusing on Volume 5

이민규**

국문요약 본고는 일제 강점기에 언론인이자 야담가로 활동한 청오 차상찬의 유고집으로 알려진 『한국야담사화전집』 제5권을 중심으로 그의 야담이 지닌 문학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959년에 간행된 이 전집은 차상찬의 생전 기고문을 단순히 집대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 비평의 삭제나 인물 비평의 추가 등 서사적 변경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자료이다. 또한 이 자료에는 장용서, 김동환 야담도 차상찬 야담으로 편입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이 자료가 1950년대 전집이 상업적으로 출판되어 대중 교양이 탄생하던, 전집의 시대가 만든 산물임을 보여준다.

핵심어 차상찬, 한국야담사화전집, 통속조선사천년비사, 별건곤, 해동염사

차례

- 서론
-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수록 야담 목록
- 역사 비평의 삭제와 서사의 간결화
- 서술의 구체화와 인물 비평 추가를 통한 교훈성 강화
- 장용서, 김동환 야담의 편입
- 결론: 전집의 시대 속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의 가치

차상찬은 생전에 다양한 야담들을 남겼으며, 그의 야담들은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그 결과는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발간으로 이어졌다. 『한국야담사화전집』은 차상찬뿐만 아니라 김동인, 이은상, 윤백남 등 20여 명의 문인들이 남긴 야담을 모은 야담집이며, 이 중 5권은 차상찬의 유고를 정리한 것이었다.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은 차상찬이 세상을 떠난 지 13년 뒤인 단기 4292년, 서기 1959년에 발간되었으며, 발간 이후 큰 인기를 얻어 재판되었다.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은 야담가로서의 차상찬의 존재를 대중들이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 서론

차상찬(車相贊)은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언론인이자 야담가로서 활약하며 민족주의 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민속문화에 깊은 조예를 가졌던 지식인이었으며, 그의 지적 관심은 야담 기고, 야담집 출간 같은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한편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은 차상찬이 생전에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했던 야담들을 그대로 싣기도 했지만, 역사 비평을 삭제하거나 서술을 상세하게 하며 인물 비평을 추가하기도 하는 등 수정한 흔적도 돋보이는 자료이다. 물론 많은 야담들이 차상찬이 생전에 기고했던 형태 그대로 옮겨졌지만, 몇몇 야담들이 수정되었다는 점은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이 단순히 옛 이야기를 모은 것이 아니

* 이 논문은 2025년 차상찬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 차상찬기념사업회 정현숙 이사장님과 홍순우 이사님께 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홍순우 이사님의 도움으로 본 연구의 논의가 심화되었음을 밝힌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강사

라, 특정한 의도를 반영한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수록 야담이 차상찬이 쓴 다른 신문, 잡지, 서적에 수록된 야담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다면, 그 특정한 의도의 이면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된 차상찬 야담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야담들을 분석하며, 그가 남긴 지적 유산의 정수가 갖는 문학적 의의와 가치 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차상찬을 다룬 여러 선행 연구들은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이 차상찬의 저작임을 밝혔지만,¹ 이 자료 속 차상찬 야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 그 야담 중 차상찬 야담이 아닌 것은 없는지, 차상찬 야담이 1950년대 대중 교양을 반영하는 전집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없었다. 다만 전술한 선행 연구들 뿐만 아니라 차상찬의 야담을 전반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들도 차상찬에게 야담이란 역사와 서사의 조화를 이루는 문학적 매개체였음을 밝히며, 본고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해주시기도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을 분석하고자 한다.²

2.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수록 야담 목록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된 야담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된 야담의 목록이 제시되고, 그 목록을 통해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된 야담이 다른 신문이나 잡지에 수록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아래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된 야담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야담들이 어떤 다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야담사화전집	기타 자료
김역관(譯官)과 운남 왕녀(雲南王女)	『조선야담전집』 2권
괴기 인물 이근	『조선야담전집』 2권 / 『별건곤』
재생	『통속조선사천년비사』 / 『별건곤』 / 『신시대』
용녀의 비밀	『해동염사』 / 『개벽』 / 『조선야담전집』 2권
정(鄭)이방의 귀동말	『해동염사』 / 『별건곤』 / 『조선야담전집』 2권
고려의 기품	『해동염사』 / 『별건곤』 / 『조선야담전집』 2권
박색 고개의 전설	『해동염사』 / 『별건곤』
황진이	『해동염사』 / 『별건곤』 / 『월간야담』
명복(名卜) 흥계관	『조광』
활인수(活人樹)	『조광』
안평대군의 실연	『조선야담전집』 2권
독안 괴룡(獨眼 怪龍)	『통속조선사천년비사』 / 『개벽』 / 『별건곤』 / 『야담』
철인(哲人) 이토정	『통속조선사천년비사』 / 『별건곤』 / 『조광』 / 『조선야담전집』 2권
상사사(相思蛇)	『별건곤』 / 『조선야담전집』 2권
단발 여탐정	『해동염사』 / 『별건곤』 / 『조선야담전집』 2권
김정승과 단천기	『광업조선』
진지왕과 도화랑	『해동염사』 / 『조광』
압록강상의 삼미인	『해동염사』 / 『아리랑』 / 『조광』
기축역괴 정여립	『조광』
강릉기 흥장과 풍류 순찰사	『해동염사』 / 『별건곤』 / 『신여성』

1 심경호, 「차상찬의 민족문학 발굴 공적」, 강원문화교육연구소·김태웅 외, 『차상찬 연구: 일제강점기 문화운동의 선구자』, 모시는사람들, 2020, 148쪽; 엄태웅, 「車相贊의 『通俗朝鮮四千年史』 편찬의식 고찰」, 『고전과 해석』 35,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회, 2021, 165쪽; 최배은, 「차상찬의 ‘어린이 역사 이야기’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7,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231쪽. 한편 공임순의 논문은 『아리랑』에 게재된 차상찬의 작품과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된 야담을 비교한 목록을 작성하기도 했으며, 본고도 그 목록을 참조하였다. 공임순, 「삼중당의 ‘대중문고’, 『아리랑』, 역사물의 연쇄와 순환」, 『춘원연구』 26, 춘원연구학회, 2023, 252쪽. 다만 공임순의 논문은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의 목록 전체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2 공임순, 「재미있고 유익하게, ‘건전한’ 취미독물 야담의 프로파간다화」, 『민족문화사연구』 34, 민족문화사연구소, 2007; 공임순, 「1950년대 『야담과 실화』 필화사건과 두 하위 장르의 선정성 논란」, 『대중서사연구』 70, 대중서사학회, 2025; 오세란, 「차상찬의 아동용 역사인물서사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47, 한국아동문학학회, 2023; 정현숙, 「개벽사와 차상찬: 기획 특집과 매체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1.

한국야담사화전집	기타 자료
왕자의 원혼	『아리랑』 / 『조선야담전집』 2권
의적 박장각 ³	『아리랑』 / 『광업조선』
장대(將台)에 스러진 별	『야담』
노총각의 만복	『농업조선』
정녀사(蛇)와 의치(義雉)	『농업조선』
열녀의 혼	『해동염사』
고려 태조	『통속조선사천년비사』 / 『별건곤』 / 『조광』
정열의 공주와 무사	『별건곤』
유방천추(遺芳千秋)	『해동염사』 / 『별건곤』
기담 사제(四題) 一, 최석(崔碩)과 팔마비(八馬碑)	
기담 사제 二, 효자 서릉(孝子徐陵)과 생개고리(生蛙)	
기담 사제 三, 기우객(騎牛客)과 일지화(一枝花)	
기담 사제 四, 절세 역사(絕世力士) 권절(權節)	
급수기(汲水妓)와 박어사(朴御史)	
비련의 화석상	
출천대효	
후백제왕 견훤	『농업조선』
바다의 전설 一, 대모(玳瑁)의 보은(報恩)	『신여성』
바다의 전설 二, 독용(毒龍)의 파선(破船)	『신여성』
바다의 전설 三, 동해의 전설	『신여성』
갓오비화 一~十	『통속조선사천년비사』 / 『별건곤』
승정궁인 굴씨	『여성』 / 『조선야담전집』 2권
백발홍장	『아리랑』 / 『중앙』
양봉래 모친	『해동염사』
공당문답	
김총각의 기연	『아리랑』 / 『조선야담전집』 2권
숙종대왕과 장희빈	『통속조선사천년비사』 / 『해동염사』 / 『별건곤』
해상의 쾌인 안용복	『별건곤』

한국야담사화전집	기타 자료
녹두장군(綠豆將軍)	『통속조선사천년비사』 / 『개벽』
고자대감	
원한의 농성	
행운	
박태보전	
절처 봉생	『광업조선』
성삼문의 서병(暑屏)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된 야담 항목은 총 55 개이며, 야담 작품은 총 64편이다. 이 64편은 시대순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며, 공통된 소재를 가진 야담들이 연달아 배치되어 있지도 않는 등 일관적인 기준을 찾아보기 힘든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이를테면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된 야담만 하더라도 「용녀의 비밀」, 「독안 괴룡(獨眼 怪龍)」, 「고려 태조」, 「후백제왕 견훤」으로 총 4편인데 이 4편이 연달아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진봉준과 동학혁명을 다룬 야담도 「갓오비화 一~十」, 「녹두장군(綠豆將軍)」으로 총 11편인데, 「갓오비화 一~十」의 10편과 「녹두장군(綠豆將軍)」 사이에는 7편의 다른 야담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야담들이 산발적으로 배치된 것은 독자가 동일한 소재를 다룬 야담을 연달아 읽으면서 권태로움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고, 독자를 새로운 관심사로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갓오비화 一~十」은 10편이 연달아 실려 있는데, 이는 출처인 『별건곤』 「民衆運動으로 이러난 甲午東學亂 秘錄: 異常한 童謠의 流行 ~ 最忌者敬天」 기사 속 야담 순서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된 야담들은 『통속조선사천년비사』, 『해동염사』, 『별건곤』, 『개벽』, 『삼천리』, 『광업조선』, 『농업조선』, 『중앙』, 『여성』, 『신여성』, 『월간야담』 등, 차상찬이 글을 쓴 서적, 신문, 잡지에 두루 실려있으며, 차상찬 사후 차상찬의 야담을 실은 잡지인 『아리랑』에도 5편⁴이 수록되어 있다. 『통

3 『동아일보』에는 이은상 작 「史상의 로맨스; 李朝篇, 義賊朴長脚」 4편이 1930년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연재되기도 했다.

4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과 『아리랑』 수록 야담을 비교하는 작업은 공임

속조선사천년비사』는 역사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증사관에 입각해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기 보다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변부의 역사를 발굴하며 역사와 서사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서적이었다.⁵ 『해동염사』는 차상찬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은 것으로 여성들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쓴 야사(野史)였다. 『개벽』과 『별건곤』은 모두 차상찬이 관여했던 잡지였으며, 그 외 잡지들에서도 차상찬의 흔적은 여실히 남아있다. 이처럼 차상찬이 저술한 신문 및 잡지 기사, 서적 속 야담이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이 차상찬 야담의 집약체임을 보여준다.

한편 몇몇 야담들은 발간 시기와 매체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가 변형되기도 했다. 이를테면 『별건곤』 「美妻와大金을一時에 어든 獵師의 이약이」에서는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5백년전”⁶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의 「고려의 기품」에서는 “때는 지금으로부터 육백년 전”⁷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별건곤』 「孝烈美談 牙山街上의 一死體」에서는 “경기사 수원(水原)이 80리라”⁸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유방천추」에서는 “서울서 수원(水原)이 팔십리”⁹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역적인 표기들이 바뀌는 것은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수록 야담들이 광복 이후에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별건곤』과 『해동염사』,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황진이의 야담도 수록되어 있는데, 『별건곤』 「開城名妓黃眞伊」¹⁰와 『해동염사』 「開城名妓 黃眞伊」¹¹에서는 황

진이의 시조가 2수만 실려있지만,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황진이」에서는 시조 “동지(冬至) 8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둘에 내어 춘풍 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린 님 오신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퍼리라”가 추가되어 총 3수가 실려 있다. 이렇게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수록 야담들은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이전에 작성된 야담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세한 차이보다 더 큰 차이들을 광복 이전에 차상찬이 서적, 신문, 잡지에 실은 야담들과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된 야담들을 비교하였을 때에 발견할 수 있다.

3. 역사 비평의 삭제와 서사의 간결화

차상찬은 잡지를 통해 민중의 역사의식을 키우고 민중을 민족주의적 공동체로 각성시키려고 했으며, 이를 위해 그는 『개벽』과 『별건곤』 속 야담의 역사적 사건을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구한말 조정의 부패와 지방관의 횡포에 항거해 민초가 스스로 자치조직을 결성하여, 근대사를 이끄는 역사적 주체로 거듭나려고 했던 동학혁명은 그에게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차상찬은 동학혁명을 소개하기 위해서 썼던 기사인 『개벽』 「甲午東學亂의 自初至終」에서 서두에서부터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였으며, 말미에도 동학혁명이 왜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甲午의 東學亂은 朝鮮 역사가 잇는 뒤로 제일 큰 民衆運動 이었다. 조금 멀리 말하면 高麗 말의 李太祖 起兵과 新羅 말의 甄萱, 弓裔, 王建 등의 蜂起의 갓가이 말하면 李适, 洪景來 등의 蹶起가 다-가티 그 당시의 現象에 대한 革命運動 아님이 아니었스나 그런 운동의 대개는 그 주모자의 英雄心理와 追從者의 정권욕에 의하여 起動되고 결과 된 것으로서 거기에

순의 연구를 참조하며 이루어졌다. 『아리랑』은 1955년에 창간한 잡지로 차상찬 사후에 발간되었지만 차상찬의 유고를 특약 게재한 영광을 입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공임순, 앞의 논문, 2023, 251~252쪽).

5 엄태웅, 앞의 논문, 186쪽.

6 『별건곤』 2호, 1926.12.1.

7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동국문화사, 1959, 31쪽.

8 『별건곤』 12·13호, 1928.5.1.

9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1959, 218쪽.

10 『별건곤』 22호, 1929.8.1.

11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1959, 50~51쪽.

는 진정한 世道를 위한 感激과 主義를 위한 투쟁이 잊지 못한 것이 보통이었으나 甲午의 東學亂에 잇서는 재래의 革朝運動과 그 趣를 달니하야「人乃天」이라는 東學思想을 배경으로 하고「輔國安民」이라는 정책을 이상으로 하여 거의 혁명적 感激과 정열로써 動한 것인 바 여기에 東學革命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¹²

그러타. 민중과 특권계급 이것은 절대의 仇讐로서 서로 대립치는 못하는 것이다.

슬프다. 실패는 성공의 母라고 당시 민중운동의 실패는 금후 민중운동을 성공시키는 어머니가 될 터이겠지. 東學의 後昆들이 이후의 민중들이 32回の 東學革命을 默想하는 그 오늘의 感懷가 엇더한고.¹³

첫 번째 인용문은 『개벽』 「甲午東學亂의 自初至終」 서두의 일부이며, 두 번째 인용문은 말미의 일부이다. 차상찬은 동학혁명이 앞선 봉건 왕조의 개창보다도 계급혁명적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하며, 민중과 특권계급, 즉 양반층이 공존할 수 없다고 천명한다. 그리고 그 민중이 특권계급을 완전히 전복하지 못한 동학혁명의 실패를 안타까워 하지만, 동학혁명으로 인해 수구의 정부가 개혁되었다고 평가한다.

『개벽』 「甲午東學亂의 自初至終」은 서두와 말미에 역사비평이 배치되어, 중간의 내용을 감싸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녹두장군」은 『개벽』 「甲午東學亂의 自初至終」과 내용이 똑같이 전개되지만, 두 번째 인용문만 삭제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통속조선사천년비사』 「甲午東學亂記」도 마찬가지이다.¹⁴ 아마도 차상찬은 『통속조선사천년비사』를 쓰면서, 『개벽』의 동학혁명에 대한 역사비평이 장황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속조선사천년비사』가 역사서를 자칭함에도 불구하고, 『개벽』 「甲午東學亂의 自初至終」 말미의 역사비평인 두 번째 인용문을 『통속조선사천년비사』에서는 삭제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의 「녹두장군」은 『통속조선사천년비사』 「甲午東學亂記」의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계승하여, 최후까지 반항하는 전봉준의 모습과 그가 남긴 유언으로 야담을 마무리지어, 그 죽음의 비극성을 부각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녹두장군」 뿐만 아니라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된 다른 야담들에서도 말미의 역사비평이 삭제되어 있다.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용녀의 비밀」은 말미에 역사비평이 없지만, 그 모본이라고 볼 수 있는 『개벽』 「高麗王祖와 西海龍豚」과 『해동염사』 「高麗 元昌王后」에는 말미에 차상찬이 이 야담을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를 논하는 비평문이 실려 있다.

筆者曰 이것은 高麗史, 高麗世系金寬毅編計通錄에서 材料를 取한 것인데 말이 너무 虛誕한것은 물론이고 당시 事大主義가 너무 熱中하야 王建太祖를 唐種으로 만드느라고 억지로 附會하야 한 이악이인즉 史家의 足取할바가 못되나 금년이 亥年이기로 도아지의 傳說을 위하야 이것을 쓴 것이다.¹⁵

一筆者曰 이것은 高麗史, 高麗世系, 金寬毅 編年通錄에서 材料를 取한 것인데 말이 너무 虛誕한 것은 勿論이고 當時 事大主義가 너무 熱中하야 王建太祖를 唐種으로 만드느라고 억지로 附會하야 한 이야기인즉 史家의 足取할 바가 못되나 한 參考로 이것을 쓴 것이다.¹⁶

첫 번째 인용문은 『개벽』 「高麗王祖와 西海龍豚」의 역

12 『개벽』 68호, 1926.4.1.

13 『개벽』 68호, 1926.4.1.

14 『통속조선사천년비사』에서는 ‘-(下略)-’이라고 표기되어 있다(『통속조선사천년비사』, 1934, 54쪽).

15 『개벽』 신간 3호, 1935.1.1.

16 『해동염사』, 28~29쪽.

사 비평이며, 두 번째 인용문은 『해동염사』 「高麗 元昌王后」의 역사 비평이다. 『개벽』에서 차상찬은 이 일화가 너무 허황되어서 믿기 힘들지만, 『개벽』 신간 3호가 발간된 1935년이 올해년, 즉 돼지띠의 해이기에 이를 기념하고자 돼지와 관련된 야담을 썼다고 밝힌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이 야담을 바라보는 차상찬의 역사가로서의 시각과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화를 『개벽』에 기고하게 된 연유가 드러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해동염사』에 수록된 것으로 『해동염사』는 『개벽』 신간 3호가 발간된 1935년보다 2년 뒤인 1937년에 발간된 만큼, 올해년과 무관한 자료이다. 따라서 『해동염사』에서는 올해년 언급이 빠졌으며, 이 야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차상찬의 역사 비평만이 남아 있다.

『개벽』, 『해동염사』와는 달리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말미의 역사 비평이 아예 삭제되어 있다. 아마도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과거의 흥미로운 야담을 최대한 원만하게 독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불필요해보이는 역사 비평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야담의 서사적 매력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한 것이다.

말미의 일부 문장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아예 항목 자체가 삭제된 야담도 있다.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의 「독안 괴룡」에는 『별건곤』 「羅末怪傑 泰封王 弓裔 秘史」와 『통속조선사천년비사』 「泰封王弓裔秘史」의 〈附 弓裔의 遺蹟〉가 삭제되어 있다. 〈附 弓裔의 遺蹟〉을 아래에 옮긴다.

지금 京元線 三防山에는 弓裔陵과 廟閣이 있고 또 鐵原邑 北三里 月井里 北端(京元線邊)에는 弓裔 古都의 遺蹟가 있스니 당시 外城의 주위는 1만 4,421척이요 內城의 주위는 1,905척이요 또 그 궁전의 古址인 古闕里는 城北 1里許에 있스니 당시 유물이라 칭하는 석등이 尙存하고(高 12척 8角, 球形 5층) 平康에도 또 그의 유적이 甚多하니 『莞爾亭』(在 平康面 花峴山麓)은 弓裔가 妓樂으로 遊宴할 때에 莞爾而笑한 故로 此

名이 有하다 전하고 『憩峴』은 弓裔가 遊獵하다가 休憩하던 곳이라 하고(在 郡西3리) 『甲棄川』(在 郡西 1리)은 弓裔가 麗太祖와 戰하다가 敗하여 棄甲逃走한 곳이요 翁主浦는 弓裔 翁主의 자살한 處요, 射廳山(在 翁主浦北)은 弓裔의 講武地, 典仲坪(在 縣內面 일명 箭中又殿中)은 泰封時 籍田이요 文科場(속칭 文科두독이니 在 邑東邊里)은 泰封時 科場이요 劔拂浪(검불랑)은 麗太祖가 劔을 拂하여 격전한 故로 仍名하였다 하고 新城山城(周圍 2,510척 在 縣內面)은 또한 弓裔所築이라 한다. 그리고 또 平康 鐵原에는 암석이 虫食함과 如한데(火成岩) 弓裔가 常히 暴虐함으로 臣이 諫한 즉 裔가 自言하되 烏頭白馬生角, 虫生石이라야 망한다 한 故로 麗太祖가 人心을 수습하기 위하여 此 火成岩을 指하여 石生虫이라 하니 人민이 다 信聽하였다 한다.(鐵原及平康郡誌 참조) 최후에 나는 나의 舊稿 중에 있는 泰封古都懷古 5絶 1首를 抄揭하고 擲筆한다.

鐵州秋日暮, 遠客動新愁.

古國山河在, 荒城草樹幽.

誰知歌舞地, 便作兔狐邱.

往跡無人問, 雲空水自流.¹⁷

〈附 弓裔의 遺蹟〉에서 궁예의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인 ‘弓裔陵’, 궁예가 무력하게 왕건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싸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인 ‘甲棄川’, 궁예의 옹주가 비극적으로 자살한 ‘翁主浦’, 태조 왕건이 검을 들고 격전을 벌였다는 ‘新城山城’ 등을 언급하며, 차상찬은 궁예의 역사적 행적을 재평가할 수 있는 설화적 여지를 남겨놓는다. 그러나 이 설화적 여지가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삭제된 것이다.

차상찬의 장희빈에 대한 역사 비평도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삭제되었다. 『해동염사』와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은 모두 장희재와 궁녀 축생, 설향 등 수십명을 사형에 처하니 이 사건을 신사무고사건이라고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장희빈의 입장 비극도 끝났다며 야담을 마

17 『별건곤』 29호, 1930.6.1.

무리짓는 반면, 『별건곤』과 『통속조선사천년비사』에서는 “希載의 妻妾 其他 此에 關聯된 者 數十人을 極刑에 處하니 此即 辛巳巫蠱의 變이었다.”라며 장희빈의 죽음에 대한 소감과 비평을 남겼다.

然而 張氏가 臨死할 때에도 一大悲劇이 演出하였스니 卽 張氏는 攄음에 그 無罪한 것을 極口辨明하였스나 肅宗이 一向 뜻지 안이함으로 張氏는 그 不免한 것을 알고 最後로 其子 景宗이나 한번 만나 보기를 願하니 肅宗도 그것은 拒絕치 못하고 永訣로 相對케 하였더니 張氏는 母子相抱하고 一場痛 哭을 하다가 最後로 毒婦의 本色을 發露하여 갈오대 내가 이 왕 죽을 진대 엇지 子息으로 閔哥와 李哥의 奉祀를 하게 하리 요 하고 달러드러 景宗의 罌丸을 잡아채니 景宗은 그 자리에 昏倒하여 몇時間人事를 不省하다가 幸히 救護되고(時에 景宗이 纔 14歲니 景宗의 平生 宿病와 無子도 此에 基因함) 張氏는 賜藥一 器로 可憐히 죽으니, 嗚呼佳人의 薄命도 薄命이어나와, 人間의 無情이 엇지 此極에 達할가 漢武帝가 召帝로 太子를 삼고 서도 其母 鉤弋夫人을 殺한 古例가 엮는 바는 안이지만은 이 와가티 慘虐한 일은 歷史上 듬은 일이었다. 春風秋雨 數百年을 經하여 張氏의 封后하든 己巳는 다시 도라왔다. 昌慶苑에 꽃이 피고 仁章里(張氏墓所) 松林에 杜鵑이 슬피울때에 當時 一世의 女傑이오, 佳人인 張氏의 薄命한 죽음을 생각하면, 그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안이하랴.¹⁸

차상찬은 경종을 성불구로 만들어버린 장희빈의 악행을 비판하면서도, 그녀를 어린 황태자의 모친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죽은 구익부인에 빗대기도 한다. 이 글에서 차상찬은 장희빈을 ‘毒婦’이자 ‘女傑’이며 ‘佳人’으로서 ‘薄命’한 죽음을 맞이했다 밝히면서, 장희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희빈을 향한 온정적 시선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양면적 시각은 반대로 독자가 장희빈을

혼란스럽게 인식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결국 장희빈의 죽음이 슬픈 역사인 ‘哀史’인가, 아니면 장희빈은 그렇게 죽어도 합당한 인물인가에 대해 독자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양면적 시각에 내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해동염사』의 제목 〈張禧嬪哀話〉가 『한국야담사화전집』에서는 〈숙종대왕과 장희빈〉으로 변경되며, 숙종대왕 대 장희빈의 갈등 구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개벽』이나 『별건곤』과 같은 잡지는 민중의 역사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서사적 재미를 넘어선, 시대와 역사에 대한 나름의 비평을 제시해야만 했다. 한편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된 차상찬의 야담들은 독자의 서사의 감정적 몰입을 방해하는 일부 역사 비평을 삭제하여 서사를 간결화시키면서, 야담을 서사 그 자체의 매력을 갖춘 문학작품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4. 서술의 구체화와 인물 비평 추가를 통한 교훈성 강화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는 서술이 상세화되면서 인물 비평이라는 새로운 비평이 추가된 사례들도 있다.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의 「고려 태조」는 『통속조선사천년비사』의 「高麗太祖建國秘話」가 『별건곤』의 「弓裔의 部下로 三韓을 統合한 高麗太祖 建國秘史」의 전문(全文)을 옮긴 것과는 달리, 일부만 옮겼으며 그 일부의 순서도 재배치하였다. 『별건곤』의 「弓裔의 部下로 三韓을 統合한 高麗太祖 建國秘史」는 태조 왕건의 출생과 그 배경을 서술한 〈非凡한 그 人物〉, 태조 왕건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거울 사건을 서술한 〈鏡讖文과 金塔夢〉, 태조 왕건이 유씨 부인을 만나게 된 일화를 서술한 〈艷福이 特多한 太祖〉, 견훤을 공산 일대에서 물리친 〈危機一髮의 公山大戰〉, 유씨부인과 부하들이 격려해 왕으로 등극한 일화를 서술한

18 『별건곤』 18호, 1929.1.1; 『통속조선사천년비사』, 1934, 271~272쪽.

〈露積덤이 우에서 登極式〉, 고려가 신라를 흡수한 〈兵不血刃.新羅統一〉, 태조 왕건의 정책과 외교술을 설명한 〈太祖의 政治와 外交策〉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의 「고려 태조」는 〈非凡한 그 人物〉, 〈露積덤이 우에서 登極式〉, 〈兵不血刃.新羅統一〉, 〈太祖의 政治와 外交策〉, 〈危機一髮의 公山大戰〉, 〈鏡讖文과 金塔夢〉 순서로 되어있다. 『별건곤』에서는 일화들이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艷福이 特多한 太祖〉가 빠지고 〈鏡讖文과 金塔夢〉이 말미에 배치되면서, 말미 앞에 서술된 역사적 사건들이 말미의 점쟁이가 미리 예견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야담의 신비감을 가미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의 「고려 태조」는 『별건곤』의 「弓裔의 部下로 三韓을 統合한 高麗太祖 建國秘史」의 일화를 축자적으로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확대 서술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아래 인용문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느 나라든지 創業의 主가 이러날 때에는 반드시 讖書와 秘記가든 것이 먼저 유행하는 것이 恒例이다. 이 王建太祖時代에도 唐의 商人 王昌瑾이 市中에서 었던 老人에게 거울(鏡) 한 개를 샀는데 그 鏡文에 글자가 써여 잇스되 『三水中, 四維下 上帝降子於辰馬, 先揉鷄, 後搏鴨, 巳年中. 二龍見, 一則藏辛青木中, 一則現形黑金東』이라 하였더니 그뒤에 그 讖書가 과연 마졌스니 즉 三水中 四維下는 新羅의 말년이란 말이요,¹⁹

어느 나라든지 창업의 임금이 새로 일어날 때에는 흔히 참서(讖書)와 비기(秘記) 같은 것이 먼저 유행하게 된다.

이 왕건 태조때에도 소위 경참문(鏡讖文)이라는 이상한 참서가 있었다.

그가 아직 등극하기 일개월전 바로 궁예왕정개오년무인(弓裔王政開五年戊寅) 오월이었다.

당나라 상인 왕창근(唐商王昌瑾)이 태봉국의 서울인 철원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우연히 본즉 모양이 점잖고 괴이한 의복을 입은 어떤 백발 노인이 왼편 손에는 사기 그릇을 들고 오른편 손에는 옛날 거울(古鏡)을 가지고 와서 사라고 하므로 창근은 쌀을 주고 그 거울을 샀더니 그 노인은 그 쌀을 갖다가 거리에 있는 거지아이(乞兒)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추었다.

창근은 그 거울을 벽뒤에 걸어 두었더니 햇빛이 그 거울에 비치어 아래와 같은 가느다란 글자가 완전히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 고시(古詩)와 비슷하였다.

삼수중사유하(三水中四維下)

상제강자어진마(上帝降子於辰馬)

선조계후박압(先操鷄後搏鴨)

사년중이룡견(巳年中二龍見)

일즉장신청목중(一則藏身青木中)

일즉현형흑금동(一則顯形黑金東)

창근은 처음에 그 글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뒤에 발견하고 꼭 이상하게 생각하여 궁예 왕께 알리었더니 왕은 관현에게 명령하여 창근과 같이 그 거울 임자를 찾게 하였으나 마침내 찾지 못하고 다만 발살사 불당(勃薩寺佛堂)에 진성(鎭星)의 흉상(塑像)만 있을 뿐인데 그 모양이 꼭 그 거울 임자와 비슷하다고 하므로 왕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한참 개탄을 하다가 당시 문신 중에 송함홍(宋含弘) 백탁(白卓) 허원(許原) 등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하라 명하였더니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여 해석하되

『삼수중사유하(三水中四維下)는 신라 말년이란 말이며²⁰

첫 번째 인용문은 『별건곤』의 〈鏡讖文과 金塔夢〉이며, 두 번째 인용문은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 〈鏡讖文과 金塔夢〉이다. 두 글 모두 태조 왕건이 왕이 되기 전에

19 『별건곤』 20호, 1929.4.1.

20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1959, 204쪽.

당나라 상인 왕창근이 고시가 적힌 거울을 구매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별건곤』에서는 왕창근이 노인에게 거울을 사고 그 거울에 새겨진 한시가 제시된 후 바로 그 한시를 해석하는 부분이 이어진다면,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한시를 다루기 이전에 노인이 거울을 팔고 관 후 사라지는 모습까지 상세하게 서술하면서, 서사가 더 풍부해진다.

『별건곤』의 「瓢子 한 개로 大洋을 平地 갖치 航行 稀世 大術家 李土亭」은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의 「철인 이토정」으로 재편되어 있는데, 『별건곤』에서는 이토정에 대해 김계휘와 이이가 평가하는 대화를 끝으로 야담이 끝나며 『통속조선사천년비사』도 『별건곤』과 전문이 똑같다. 반면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이 부분이 중간에 위치해있으며, 서술의 심도도 다르다.

金繼輝가 栗谷(李瑀)더러 馨中(土亭의 字)을 諸葛亮에 비하면 엇더할가 물었드니 栗谷의 대답이 土亭은 적용의 才가 아니라 물질에 비하면 奇花異草 珍禽怪石 가티 노코 보거나 할 것이오 布帛菽粟 가티 緊用할 것은 못된다 하얏는데 土亭이 듯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菽粟이 안이면 橡栗의 類는 될 것 인즉 橡粟을 쓸 곳이 순전히 업슬가 하얏스니 그 자타의 月朝 評이 근사하얏던 것 잤다.²¹

그때에 김계휘(金繼輝)란 이는 이율곡(李栗谷)을 보고 묻되 『형중(馨仲 = 土亭[토정]의 字[자]) 이 제갈량(諸葛亮)에 비해 어떠하냐.』

고 하였더니 율곡은 대답하되

『토정은 적용할 인재는 아니나 물질에 비하면 기화이초(奇花異草)나 진금기수(珍禽奇獸)와 같아서 놓고 구경이나 할 것이지 포금(布帛) 숙숙(菽粟 - 콩과조) 같이 긴요한 것은 못된다.』

고 하였더니, 토정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되

『내가 콩이나 조가 못된다면 도토리나 밤은 될 것이니 어찌 전연 쓸 곳이 없으랴.』

고 말하였다.

그 한 가지의 자타(自他) 비평한 것만 보아도 당시에 일반이 그를 얼마나 문제의 인물로 삼고 또 토정 자신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그의 진가(眞價)를 알지 못하고 율곡까지도 그를 그저 기화이초나 진금기수에 비하고 말았으니 어찌 해석지 않으랴 그때에 그가 일부러 광개 행세를 하며 세상을 비웃는 것도 또한 까닭이 있는 것이었다.²²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김계휘와 이율곡의 대화에 이어 초립동(草笠童) 시절의 일, 돈 만드는 재간을 부려 『허생전』의 허생처럼 섬에 들어가 처녀지를 개척하고 섬 백성에게 장사하는 일도 가르친 일, 원님행차에 달려들어 불기를 맞아보고 싶었지만 맞지 못한 일, 선비들이 일부러 병들었다고 핑계대는 것을 비꼰 일, 포천행감이 되어 시래기국을 손님에게 대접한 일, 아산 고을에 있을 때에는 아전을 골탕먹인 일 등이 상세하게 서술된다. 『별건곤』에서는 이 일들이 이토정에 대해 김계휘와 이이가 평가하는 대화 앞에 배치되어 있고, 짧은 분량으로 간략하게 언급되기만 한다면,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이토정에 대해 김계휘와 이이가 평가하는 대화를 통해 독자가 이토정이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예감하도록 한 후, 이토정의 기이한 일화들을 자세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철인 이토정」의 말미에는 이토정이라는 인물에 대한 비평까지 더해져 있다.

그는 육십이세를 한평생으로 하고 물거품처럼 이세상을 다녀가는 동안에 기이한 행적과 일견 모순된 행적을 수없이 남겼다. 그럼으로써 그는 당시의 어리석은 세상사람들과 킁킁한 위정자(爲政者)들을 비웃고 냉평하고 또한 그들을 크게

21 『별건곤』 11호, 1928.2.1.

22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1959, 83쪽.

훈계한 것이니, 이는 인생의 철리(哲理)를 몸소 실행한 것이다. 그렇건만 그때에 있어서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나 그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그저 그를 한 술객(術客)이나 기괴한 사람으로 알게 된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이제 그가 돌아가던 무인년을 당하여 그를 추억하는 생각이 더욱 새삼스러워진다.

그는 비록 돌아간지 오래으나 그의 이름은 민간에서 유행하는 토정비결과 아울러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²³

『별건곤』이 이토정의 기행담을 나열하는 것에 그쳤다면,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은 이토정에 대한 인물 비평을 추가하여, 독자들이 이토정이라는 인물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문학적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독자가 이토정의 기행담을 재미있는 일화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의 철학을 전해주는 교훈담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 일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분량이 가시적으로 증대된, 또 다른 야담으로는 송당(松堂) 박영(朴英)을 다룬 「재생」이 있다. 이 「재생」은 『별건곤』과 『통속조선사천년비사』에서는 서술이 간략한 반면,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서술이 상세한데 이는 아래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다.

松堂 朴英이라 하는 이는 讓寧大君禔의 外孫이오 更叅 朴壽宗의 아들이었다. (중략) 朴氏는 幾死之餘에 집에 도라와서 그 여자는 本家를 차저 돌너보내고 자기도 그길로 武職을 辭한 후, 자기의 고향인 善山에 도라가서 節을 折하야 독서하기를 맹서하고 新堂鄭鵬先生에게 受學하야 수년간을 杜門不出하고 潛心研究하니 전일에 그 放蕩豪俠하던 기질이 아주 변화하야 一世의 大儒가 되고 또 평생에 그의 坐側에 前日 賊窟에서 破裂된 戎衣를 두고 자손과 제자에게 示하며 경계하였다. 그는 中宗 己卯에 刑曹叅判으로 잇다가 誣罪로 酷刑을 당하고 田里에 放歸되었더니 未久에 다시 擢用되야 慶尙左

兵使로 官이 兵叅에까지 이르렀다가 70의 老齡으로 卒逝하였다. 지금 세간에 유행하는 山林經濟도 그의 著作한 것으로 徐有槩가 增補한 것이다.²⁴

그는 밀양박씨(密陽朴氏)로 자(字)는 자실(子實)이며,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외손자(外孫子)요, 이조참판(吏曹參判) 박수종(朴壽宗)의 아들로서 (중략)

박씨는 이상하게 여겨 그 여자에게 묻되

『이 집이 누구의 집이고 또 너는 무슨 까닭으로 우느냐?……』

하엿더니 그 여자는 손짓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며 박씨에게로 바싹 다가 와서 귀에 대고 가만히 가는 목소리로 (중략)

박씨는 그런줄도 모르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자기의 옷자락이 그렇게 꿇어진 것을 보고 새삼스럽게 무서운 생각이 나서 온몸에 별안간 소름이 끼치고 등골에 진땀이 쪽 흘렀다.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고 숨을 돌린 다음에 그 여자에게 음식도 먹이고 옷도 새로 주어서 그 본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도 그 길로 선전관을 사직한 다음에 고향인 경상북도 선산(善山)으로 돌아가서 다시 글공부를 하기로 크게 결심하고 맹서하여 당시 그마을에서 학자로서 유명한 신당 정봉 선생(新黨鄭鵬先生)의 문하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공부하니 불과 이삼년만에 그 방탕 호협하던 기질이 변하여 침착온후하게 되고 따라서 학문도 가위 팔목상대하게 크게 진취되어 필경 큰 유학자가 되고, 또 그는 평생에 자기의 앓은 자리 옆에다 전날 도적의 칼에 맞아 찢어진 용복을 걸어두고 항상 그 자손과 제자에게 보이고 훈계하였다.

그는 인물이 그렇게 비범하니만큼 지감이 남보다 뛰어나서 보통사람으로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 많으니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말한다면, 한번은 그가 김해부사(金海府使)로 새로 부임하여 관하 지방을 순시케 되었는데, 한곳

23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1959, 89쪽.

24 『별건곤』 20호, 1929.4.1; 『통속조선사천년비사』, 1934, 327~329쪽.

에 당도한즉 어떤 집에서 곡성이 낭자하게 들리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관예를 보내 사실을 조사하여 오라 하였다니 그 관예가 돌아와 보고하되

『그 곡성은 다름이 아니라 젊은 여자의 곡성인데 사실인즉 간밤에 그 집에 불이 나서 집이 다 타고 그 남편되는 사람까지 타 죽어서 그렇게 애통을 하는 것이 올시다.』²⁵

첫 번째 인용문은 『별건곤』과 『통속조선사천년비사』에 실린 것이며, 두 번째 인용문은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실린 것이다. 『별건곤』, 『통속조선사천년비사』에서는 박영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홀렸다가 도적의 소굴에 갇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구하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서술된다면,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그 과정에서 박영과 여인이 나누는 대화, 박영이 도망치는 모습 등이 상세하게 서술된다. 그리고 『별건곤』과 『통속조선사천년비사』에서는 박영이 아름다운 여인을 구한 후 공부를 열심히 하여 관직에 올랐다면 끝이지만,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박영이 이 사건 이후 공부를 하여 김해부사가 되어 악한을 처벌한 일, 벼슬을 그만둔 뒤 충청도 음성의 무극역을 지나면서 지은 한시가 더해져 있다. 그리고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재생」의 서두에는 인물 비평까지 추가되어 있다.

사람은 세상에 나서 몇번 변하고 몇번 다시 되는 것이다.

젊었을 때 악(惡)하고 불량하던 사람도 개과천선을 하면 착하고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불량하고 무식한 사람도 깨닫고 배우면 착실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예(例)의 인물은 고금 역대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있지만 옛날 우리 나라 사람 중에 가장 그러한 좋은 예로는 아마 송당 박영 선생(松堂朴英先生)일 것이다.²⁶

이 서두의 인물 비평을 보면 왜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수록 야담의 제목이 「재생」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재생」은 『별건곤』에는 「絶處逢生 죽엇든 生命이 살아난 實談集, 美人에게 홀리어 殺人强盜窟에 갔다가 暗夜逃生」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통속조선사천년비사』에는 「朴英의 少年時代」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별건곤』의 제목은 박영이 미인에게 홀렸다가 야밤도주해 살아난 것만을, 『통속조선사천년비사』는 박영의 젊은 시절을 강조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서는 박영처럼 살다보면 누구나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박영에 대한 인물 비평을 추가하고 제목도 그 인물 비평에 걸맞는 ‘再生’으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된 야담들은 『별건곤』에 수록된 야담 속 일화의 순서를 바꾸거나 서술을 구체화시켜 분량을 증대시키고 인물 비평을 추가하여, 독자들이 야담의 서사를 원활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까지도 성찰하도록 유도하였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5. 장용서, 김동환 야담의 편입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는 차상찬의 야담 뿐만 아니라 장용서, 김동환의 야담도 편입되어 있다. 『한국야담사화전집』의 「기담사제」 4편은 장용서가 『동아일보』에 ‘石堂’이라는 필명으로 적은 야담이며, 「출천대효」도 그가 동아일보에 연재한 것이다. 그리고 「기담사제」 4편과 「출천대효」 사이에 있는 「비련의 화석상」은 김동환이 『별건곤』과 『삼천리』에 기고한 것이다. 왜 장용서 야담과 김동환 야담이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편입된 것일까? 1차적으로는 『한국야담사화전집』 편집진이 장용서, 김동환 야담을 차상찬 야담으로 착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2차적으로는 이 편집진이 장용서 야담과 김동환 야담에서 차상찬 야담의 매력을 부분적으로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다.

25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1959, 12~16쪽.

26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1959, 12쪽.

차상찬 야담의 문학적 영향력이 지대하기에 장용서 야담과 김동환 야담이 그 아류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보자면 차상찬 야담의 문학적 영향력이 지대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장용서 야담과 김동환 야담이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에 수록된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란 불가능하지만, 3차적으로는 소재적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장용서, 김동환 야담을 편입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은 소재적 다양성을 확보해야만 했을까? 이는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이 발간되던 1950년대가 전집의 시대였기 때문이었다.

6. 결론

: 전집의 시대 속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의 가치

광복 이전인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의 공통된 과거인 역사를 식민지 조선인에게 주지시켜, 민족적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는 그 과거를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제시하고 독자들이 역사에 몰입하며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보인다. 역사 비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문학적 서술이 더해지는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수록 야담들은 역사를 이야기의 형식을 사용하여 전달하였던 『통속조선사천년비사』²⁷의 문학적 노력을 계승하여, 역사와 서사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복 이후에는 신문, 잡지에서 전집으로 야담의 매체가 전환되기도 했다. 1950~60년대는 한국문학의 계보를 쓰고자 민중서관의 『한국문학전집』과 전세계 문학을 고루 소개하는 전집인 『세계문학전집』 등이 발간되었으며, 출판사들이 전집 사업을 통해 성장하며 새로운 지적

유행을 주도하던 시대였다.²⁸ 근대에 야담은 잡지에 실리며 대중적인 독서물로 기능했으며, 그 야담을 강연하는 야담대회는 오락을 즐기는 행사였다.²⁹ 잡지와 신문은 정기간행물로서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발행된다는 점에서 주기성을 지니고 있으며, 야담대회는 현장 공연으로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오락 행위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즉시성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전집은 비주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완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집은 백과전서처럼 모든 완성된 지식을 망라해야만 했고, 그 모든 완성된 지식에는 역사와 서사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도 포함해야 했다. 이러한 전집의 시대 속에 발간된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수록 야담들은 저속하지도 않고 난해하지 않는 교양을 추구하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했던 것이다. 역사와 서사를 조화시킨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은 차상찬의 문학적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그의 야담가로서의 위상을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시켰다. 이 점만으로도 이 자료의 학술적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28 이종호, 「1950년대 남한 문학전집의 출현과 문학정전화의 욕망: 민중서관 『한국문학전집』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5, 동악어문학회, 2010.

29 고은지, 「20세기 '대중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김준형, 「야담운동의 출현과 전개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20, 민족문학사연구소, 2002; 배선애, 「근대적 공연예술로서의 야담(野談)과 야담대회」, 『한국극예술연구』 42, 한국극예술학회, 2013; 신상필, 「日帝時期 野談大會의 현장」, 『한문학보』 16, 우 리한문화회, 2007.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개벽』, 『동아일보』, 『별건곤』
『한국야담사화전집』 5권, 동국문화사, 1959.
차상찬, 『통속조선사천년비사』, 북성당서점, 1934.
_____, 『해동염사』,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2. 단행본 및 논문

- 고은지, 「20세기 '대중 오락'으로 새로 태어난 '야담'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공임순, 「1950년대 '야담과 실화' 필화사건'과 두 하위 장르의 선정성 논란」, 『대중서사연구』 70, 대중서사학회, 2025.
_____, 「삼중당의 '대중문고', 『아리랑』, 역사물의 연쇄와 순환」, 『춘원연구』 26, 춘원연구학회, 2023.
_____, 「재미있고 유익하게, '건전한' 취미독물 야담의 프로파간다화」, 『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김준형, 「야담운동의 출현과 전개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20, 민족문학사연구소, 2002.
배선애, 「근대적 공연예술로서의 야담(野談)과 야담대회」, 『한국극예술연구』 42, 한국극예술학회, 2013.
신상필, 「日帝時期野談大會의 현장」, 『한문학보』 16, 우리한문학회, 2007.
심경호, 「차상찬의 민족문학 발굴 공적」, 강원문화교육연구소·김태웅 외, 『차상찬 연구 - 일제강점기 문화운동의 선구자』, 모시는사람들, 2020.
엄태웅, 「車相贊의 『通俗朝鮮四千年史』 편찬의식 고찰」, 『고전과 해석』 35, 고전문학한문학회, 2021.
오세란, 「차상찬의 아동용 역사인물서사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47, 한국아동문학학회, 2023.
이종호, 「1950년대 남한 문학전집의 출현과 문학정전화의 욕망: 민중서관 『한국문학전집』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5, 동악어문학회, 2010.
정현숙, 「개벽사와 차상찬 기획 특집과 매체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
최배은, 「차상찬의 '어린이 역사 이야기'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7,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231쪽.

Abstract

Reconsidering Hanguk Yadam Sahwa Jeonjip as Cha Sang-chan's Collected Yadam

Focusing on Volume 5

Lee, Min-Gyu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reexamines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the historical tales (yadam) of Cha Sang-chan, a prominent journalist and storytell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Volume 5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Korean Historical Tales and Narratives (Hanguk Yadam Sahwa Jeonjip). Published posthumously in 1959, this volume is more than a simple compilation of his writings; it is a significant resource that reveals deliberate editorial and narrative revision. The study classifies the tales included in the volume and compares them with their earlier versions published in other media in order to identify patterns of change, including the deletion of historical criticism, the addition of evaluative commentary on characters, and shifts in narrative structure. By tracing these revisions, the article examines the narrative strategies and editorial intentions embodied in the collection. It ultimately reassesses Cha Sang-chan's effort to reconcile historical consciousness with storytelling and repositions his work within the history of Korean yadam and narrative literature.

Keywords Cha Sang-chan, Hanguk Yadam Sahwa Jeonjip, Tongsook Joseonsa Cheonnyeon Bisa, Byeolgeongon, Haedong Yeomsa.

이 논문은 2026년 3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4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